

※조선시대 회화의 시대구분

1. 초기(1392-1550): 안견과 화풍의 형성 및 유행

①도화서(圖畫署)의 기구 정비: 1460-70년경: 화원(畫員)

②회화담당자;

-도화서 화원: 궁정의 요구·주문에 부응해야함, 장식적이고 현실적 그림이 위주.

예술이기 보다는 기술

-왕공사대부: 여기적(餘技的) 화가, 지화격자(知畫格者), 새로운 화풍 창출

③안평대군의 회화수집

④화단 경향: 안견파화풍(安堅派畫風), 이곽파화풍(李郭派畫風), 마하파화풍(馬夏派畫風), 절파(浙派)화풍

⑤대표적 화가: 안견, 강희안, 이상좌, 양팽손, 신사임당

2. 중기(1550-1700): 절파(浙派) 화풍의 유행

①화원집안의 형성; 김시-김기-김식-김집, 이경윤-이영윤-이징, 이상좌-이승효-이홍효-이정, 윤의립-윤정립

②절파화풍: 명초(明初) 절강성 출신의 대진(戴進)을 시조로 하며, 그와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절강지방 양식의 영향을 받았던 화가들의 화풍을 집합적으로 부르는 것.

③묵죽(墨竹)·묵매(墨梅)·목포도 등의 전문화가

④영모 화조화의 발전

⑤남종화(南宗畫)의 소극적 수용. 『고씨역대명인화보』의 전래

3. 후기(1700-1850): 진경산수(眞景山水), 풍속화(風俗畫), 남종화(南宗畫)의 풍미

①남종화의 본격적 유행

*남종화: 인격이 높고 학문이 깊은 선비가 여기(餘技)로 수묵과 담채를 써서 내면세계의 표출에 치중하여 그린 간일하고 품격 높은 그림을 말한다. 중국 명대(明代)의 동기창·막시룡 등이 역대 회화를 구분지으면서 생긴 명칭. 원말(元末) 이후로는 남종화가 구도나 준법, 필법(筆法), 수지법(樹枝法) 등에서 일정한 화법상의 형식화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을 문인화가 뿐만 아니라 직업화가들도 본받아 그렸다.

②진경산수화의 발전

*진경산수화: 조선 후기 정선에 의해 형성된 화풍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실재하는 경관을 남종화에 바탕을 두고 발전된 정선 특유의 화풍을 가미하여 그린 산수이다.

③풍속화의 발달

④서양화법의 전래

4. 말기(1850-1910): 남종화의 유행

①남종화풍의 유행;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중심

②근대 및 현대화단으로의 이행; 오원 장승업-심전 안중식, 소림 조석진 등

③민화의 유행

※한국회화사의 시기 구분은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pp.91-92 참조.

8. 조선초기의 회화

1. 조선시대 도화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2. 조선초기의 대표적 화가 안견의 그림과 안견과 화풍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2. <소상팔경도>의 개념과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1. 도화서(圖畫署)의 구성과 화원의 시취

-1460년대 성종 연간에 도화원(圖畫院)에서 도화서(圖畫署)로 변경

-국가가 필요로 했던 일체의 '도화'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예조에 소속된 종6품 아문.

-구성;

제조(提調) 1인

별제(別提) 2인

화원 20인:선화(善畵) 1인, 선회(善繪) 1인, 화사(畵史) 1인, 회사(繪史) 2인,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 3인.

화학생도(畵學生徒) 15인, 배첩장 2인, 차비노(差備奴) 5인, 근수노(跟隨奴) 2인 (이상 『經國大典』 의거)

-화원으로서 최고직은 종6품 별제 혹은 선화였으나, 파격적인 출세하기도 함.

-조선후기에는 경관 동반직인 주부(主簿), 외관직인 찰방, 현감 등에 종종 임명.

-1783년부터 차비대령화원제가 운영되어 공개시험을 통해 선발된 10명 가량의 화원이 왕실 관련 회화를 우선적으로 담당하며 최고급의 대우를 받았다.

-취재;

竹(1등), 산수(2등), 인물·영모(3등), 화초(4등) 등 두 가지 시험. 각각 통(通), 약(略)으로 차등되게 채점.

2. 조선초기의 화풍: 안견파 화풍

- ① 이곽파(李郭派) 화풍
- ② 마하파(馬夏派) 화풍, 남송원체화풍(南宋院體畵風)
- ③ 고극공(高克恭) 계열의 미법산수 화풍
- ④ 명대 원체화풍(明代 院體畵風) 및 절파화풍(浙派畵風)
- ⑤ 문동·소식 등 호주죽파(湖州竹派)의 묵죽화풍

● 안견(安堅)

字 可度, 得守, 號, 玄洞子, 朱耕. 池谷 출신.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연간 활동(?-1470년대 초까지?)

당시 문화계의 거두였던 안평대군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 李郭派 화풍, 馬夏派 화풍의 공간 개념, 기타 화풍 혼합하여 독자적인 화풍 형성

☞ 안평대군 이용(安平大君 李瑢, 1418-1453)

-字 청지(淸之), 호 비해당(匪懈堂), 매죽헌(梅竹軒). 세종의 3남. 시 서 화에 모두 뛰어났으며, 특히 조맹부의 송설체를 토대로 했던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고, 최대 중국 서화 소장가였으며, 안견의 강력한 후원자.

- 황보인, 김종서, 이현로 도움으로 정치적 실력 길었으며, 형인 수양대군과 첩예한 세력다툼 전개. 1453년 계유정란 맞아 강화도에 유배. 35세에 사사됨.
- 안평대군의 서화 수집의 내력은 신숙주의 『보한재집』 권14, 「화기(畫記)」에 수록(1445년). 1435년경~1445년 사이에 수집한 작품들. 주로 중국화, 그 가운데 宋元代 회화가 주를 이룸. 조선의 그림으로는 安堅의 작품만 포함됨.

<몽유도원도>

- 1447년 4월 20일부터 3일 만에 완성.
-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桃源을 노닐었던 내용을 그림. 도잠(陶潛, 365-396)의 <도화원기>와 관련
- 안평대군의 서문(題記) + 題詩(3년 후 지음)
- 신숙주, 이개, 정인지, 박팽년 등 대표적 학자들 21명의 자작시가 자필로 이어짐
- 시서화가 망라된 종합적 예술작품.
- 뛰어난 작품성:
 - 전체적인 구도
 - 공간의 기술적인 처리
 - 평원과 고원의 대조 및 사선운동의 활용에 의해 산수의 웅대함 구현
 - 환상세계의 성공적 구현

전 안견, <사시팔경도>

북송대 이후의 광희파 화풍과 남송대 마하파 화풍을 절충한 안견의 독자적 화풍으로 추정. 광희파 요소는 필묵법, 해조묘, 계절의 변화에 따른 표현상의 차이, 자연의 웅장함과 인간의 미미함을 대조시킨 거비과적 경향. 마하파의 요소는 확대지향적인 공간개념과 안개 싸인 토파 등.

전 안견, <적벽도>

북송 소식(蘇軾)의 적벽부(赤壁賦)를 표현한 그림

●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 소상팔경(瀟湘八景): 중국 호남성(湖南省) 동정호(洞庭湖)의 남쪽 영릉(零陵) 부근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이 합쳐지는 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소재로 팔경으로 읊거나 그린 것.
- 북송대(北宋代) 11세기 송적(宋迪, 1014-1083)이 그린 소상팔경도가 유명.(宋 심괄, 『몽계 필담』)- 우리나라에 전해짐.
- 그러나 10세기 이성(李成, 919-967)이 먼저 그렸다고 함.(전경원, 『소상팔경 동아시아의 시와 그림』, 건국대출판부, p.57) 1080년 미불이 악록산에 이르러 이성의 그림을 보고 시를 지어 붙여 세상에 전했다고 함.

내가 이영구의 그림 소상팔경도를 돈을 주고 구입했다가 공무의 여가에 붓의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찬술했더니, 주인이 드러누워 손님을 마주하며 노는 듯하기에, 그 후로 가는 곳마다 지니고 다니며 보았다. 원풍3년(1080) 여름 4월 양양 미불은 서하다.(미불, 「소상팔경도시병서」)

- 실경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념화, 이상화, 관념화되어 아름다운 경치의 대표적 예로, 상

정적 존재로 자리잡음. 우리나라에서도 인습화, 형식화되었다.

-고려 명종연간(1171-1197)전에 문신(文臣)들에게 소상팔경을 주제로 글 짓게 하고 이녕(李寧)의 아들 이광필(李光弼)에게 그림 그리게 함. → 시화일률(詩畫一律)

- ①산시청람(山市晴嵐): 山市에 아지랑이가 걷히고 있는 혹은 맑은 아지랑이에 싸인 산시를 표현.
- ②연사만종(煙寺晚(暮)鐘): 멀리 연무에 싸인 산속에 자태를 드러내는 절로부터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 ③소상야우(瀟湘夜雨): 소상에 내리는 밤비 -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무가 바람에 날림.
- ④원포귀범(遠浦歸帆): 먼 바다로부터 돌아오는 돛단배
- ⑤평사낙안(平沙落雁): 평평한 모래펄에 내려앉는 기러기 떼.
- ⑥동정추월(洞庭秋月): 동정호에 비치는 가을 달.
- ⑦어촌낙조(漁村夕照): 어촌에 찾아드는 저녁 놀
- ⑧강천모설(江天暮雪): 강과 하늘에 내리는 저녁 눈

전 안견, <소상팔경도>, 국립중앙박물관

15세기 <사시팔경도> 계통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새로운 양상(16세기적) 보임.

-보다 확대된 공간

-주산의 모습--도식화. 왜곡

-단선점준 적극 구사

*短線點皴: 우리나라 16세기 회화에서 종종 간취되는 일종의 준법이다. 짧고 불규칙한 필선과 장삼각형에 가까운 일종의 점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산이나 언덕, 또는 바위의 표면 처리를 하는데 이용되었고, 16세기에 전형적으로 발전하여 17세기 초까지도 유행되었다.

<소상팔경도> 일본 大願寺

*1539년 우리나라에 일본 사신으로 왔던 손카이(尊海)가 얻어간 것. 뒷면에 尊海의 일기가 있음.

-- 존재는 대원사의 승려였는데, 대원사의 大藏經이 낡고 잔결에 불과함으로 새로운 대장경을 구하기 위해 1538년 조선으로 건너와 1539년 9월까지 머물렀으나 결국 구하지 못하였다.

-양팽손 <산수도>와 유사하지만 화면의 짜임새가 뒤지고, 필치가 성글고 유약하며, 경물의 형태도 어색하고 과장됨.

【참고자료】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안휘준, 『한국회화사연구』, 시공사, 2000

안휘준, 『한국미술사연구』, 사회평론, 2012

홍선표, 『(한국의) 전통 회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